

# “신뢰 쌓이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고양시장래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장래인종합복지관에서 찰흙을 빚어 작품을 만드는 ‘도예 활동’과 간식표에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 스티커를 붙이는 ‘자기주장 활동’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왼쪽부터). 복지관에서는 감각통합치료와 제과제빵, 요리 활동 등도 진행 중이다.

2015년 9월, 경기도 고양시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김경주)의 한결옴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반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4명)이 일반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이용자인 철수(가명·23) 씨는 첫날부터 사고를 쳤다. 담당 스태프인 이정필(25) 사회복지사가 인사를 건네자마자 얼굴에 주먹을 날려 안경다리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다. 철수 씨는 과격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이다. 작지 않은 체구에 힘이 센 철수 씨는 평소 자해와 타해 등 폭력성이 심해서 2014년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집에서 생활했다.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서였다. 그는 아버지가 없으면 가구나 베란다 유리 등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는 문제행동을 보여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철수 씨 같은 이용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센터를 찾은 부모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놓았다.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센터를 이용하면서도 철수 씨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다. 뭔가가 못마땅하면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벽이나 수납장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 행위와 동물처럼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훈련받은 스태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에서는 스태프와 자문단이 모여 철수 씨에 대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고, 타해와 자해 빈도 감소 및 정기적인 식사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철수 씨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을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의사소통을 거듭했다.

센터와 철수 씨 사이에 신뢰가 쌓이자 변화가 생겼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던 폭력적 행동이 2주일에 한 번꼴로 줄었고, 자해는 거의 사라졌다. 부모가 “안돼”라면 바로 철수 씨 주먹이 날아왔는데 설명하면 기다릴 줄 알게 됐고, 아버지가 없을 때도 집에서 말썽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고양시장래인종합복지관의 신혜용(53) 서비스지원팀장은 “아산재단의 지원 덕분에 2년 동안 센터를 잘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생활이 우리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370여 사회복지단체에 45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